

보수-진보 갈림길... 선택의 날 밝았다

오늘 18대 대선 투표... 밤 11~12시 윤곽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제18대 대선 투표가 19일 실시된다.

〈관련기사 3·4·5면〉
광주 동구청장과 광주 동구, 여수 시, 화순군 등 4곳의 기초의원을 포함 전국 23곳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번 대선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 1224곳을 포함해 전국 1만354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투표 대상자는 총 유권자 4050만 7842명(인구 수 대비 79.3%) 가운데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17만9188명과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4만3201명을 제외한 4046만4641명이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 때의 3765만3518명에 비해 285만4324명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선거인 수는 264만 8886명(인구 수 대비 78.3%)으로, 전국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선거위는 투표가 끝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서 개표를 시작, 밤 11시~12시에는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잠정 개표 완료 시간은 20일 새벽 2시께로 전망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여교 체육관(광주 동구)과 빛고을 체육관(광주 서구) 등 27곳의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판세가 팽팽한 박빙의 상황을 보이면서 투표율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63.0%보다 높은 7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총력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데다 사상 첫 '여성 대 남성'의 성(性) 대결이라는 정치적 의미까지 더해져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 변화의 방향과 폭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박종선·김소연·김지원·김순자 후보 등 6명이 뛰고 있다. 현재까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선거 막판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 하는 등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께서 투표를 하지 않으신다면 대통령 직선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마음을 정했다면 그 결정을 가슴 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투표해 표로써 보여주세요"라며 "그때야만 국민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사들은 개표 종료와 함께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할 예정이며, 오후 7시부터는 중앙선거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표결과 상황이 실시간 게재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부산역 광장 합동유세에서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알림

함께 해요, 희망 레이스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 접수 서두르세요 mara.kjmedia.co.kr

- 일시: 2013년 3월 1일(금)
- 종목: 풀코스·하프코스·10km·5km
- 마감: 2013년 2월 7일(수)
-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朴 "국민 행복시대 열겠다" 文 "투표로 새시대 열어달라"

마지막 지지 호소

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며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삶, 이제 저 박근혜가 국민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면서 지켜드리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대타당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결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고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우리는 시간이 없다"며 "국정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1년, 2년이 소모되는 불안한 정권이 아

니라 당선 즉시 국정을 이끌어내고 민생과제를 해결해나갈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가대표라고 하기엔 능력도 자력도 없음이

입증됐다"라며 "새로운 팀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대표선수 한 명 바뀌어 풀릴 일이 아니다. 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난 5년의 정치를 함께 끌어왔다"며 "그런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임무교체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불편, 불안, 불만, 불신, 불통으로 국민은 너무 힘들었다"라

며 "가혹하게 매를 들어야 하며 내일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 공평과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기 자신을 더 좋은 나라에 살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투표"라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개교)
원서접수
12.21(금)~26(수)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석사과정(야간): 광주반, 여수반
일반전형('12.12.19까지 접수)
최고정책과정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http://cnugpa.kr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포스코가 들려주는 소재와 에너지 이야기

철을 만들고 난 부산물로 친환경 탄소소재를 만들어요~

더 가벼운 미래 자동차도?

포스코가 만드는 경량소재 마그네슘(Mg)과 친환경 에너지소재 리튬(Li)으로 미래자동차가 색색색~

제철소가 발전소도 된다!

철을 만들어 버려야 하는 가쓰도 버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요.

우리동네에도 미니발전소!

우와~ 포스코 건물전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동네가 더 깨끗해 지겠구나!

소재도 에너지도 역시, 포스코

글로벌 TOP 소재·에너지 산업의 꿈과 희망을 향하여!

꿈과 희망이 자란다
소재와 에너지로 자란다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싶은 꿈과 희망으로 철강을 넘어 소재와 에너지로 내일을 키워갑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는 더 나은 세상, 포스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posco
이름 만큼 기꺼워드립니다